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

6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가족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입니다.

텔레비전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하려는

가족을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손쉬운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TV 시청시간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4시간 30분이었고,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시간 28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한 다른 활동에 비해, 저소득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TV 시청을 통한 여가활동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가장 ‘평등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이나 위성, IPTV 등 채널수가 많은 유료방송에는 비용이 들지만 아직 지상파 위주인 TV 문화를 생각하면 TV 시청은 소득이나 계층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여가활동입니다. 여기에 소비할 자원이 넉넉지 않



박진규 서울여대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 편히 즐기고 싶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TV는 가족 사이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족 사이의 공통 화제는나 대화 주제를 찾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들과 장년/노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관심사가 사라져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면서 이 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광하는 아이 들 그룹이 노래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의 문 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의 고민거리를 조심스레 개별 용기를 얻을 수 있 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전 성기를 상상해볼 기회도 생기고, 매일 저녁 뉴스를 함 께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생각을 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채널이 많아지고 전문화되 면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문화 는 너무 가볍고 일관적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온 세대가 공감하고 즐겼던 ‘세시봉’ 열풍의 기억은 더 소중합니다.

가족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입니다. 텔레비전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하려는 가 족을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손쉬운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 를 위한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물론 잘 활용하려는 가 족 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은 물론 때 같습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여가활동 1순위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59.3%가 선택했다는군요. 문화예술 관람, 자기 개발, 스포츠 활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가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TV·DVD 시청이 6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텔레비전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는 있지만 사실 별로 원하지 않는 활동인 셈입니다. TV 시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책과 텔레비전을 비교할 때 도 보입니다. 우리는 독서가 TV 시청보다 훨씬 “건강한”, “유익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한 일간신문이 “거실을 사재로”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의 거실 한가운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 TV를 책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편적 인식을 눈치챈 텔레비전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나 <TV, 책을 팔아요>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스로의 위치를 책 아래로 낮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은 가족의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를 망쳐버리는 주범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큼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는 건 소파에 누워 별 이롭지 않은 것들을 각자 멍하니 쳐다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TV에만 의존해 흘러보낸 후 허무없이 밀려드는 허탈감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TV를 위한 변명을 해보려 합니다. 가족의 여가를 위해 TV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봅시다. TV도 여가 “선용”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의 통계에서도 보듯이 우리에게겐 원하는 여가활동이 있지만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행을 비롯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실제 여가활동으로 1위를 차지한 TV 시청에는 별다른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누구에게나 하라 되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조사기관 TNmS 조사